

02-7475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민주노동당 특보

나. 작 성 자 : 발행인 권 영 길

다. 발행처(일) : 민주노동당(2002.)

2. 分 析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의 대선관련 소식지로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단결을 이룩하여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대선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동자의 세상을 열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인데(여기의 '노동자 세상'이 사회주의를 의미한다는 근거를 찾을수 없음), 이 내용중 북한노선을 고무찬양,선전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주장은 표출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3. 總 評

이 문건은 북한노선을 고무찬양,선전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국가변란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지 않는바, 좌익용공의 이적성 문건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분류된다.

2002 年 12 月 1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02-7505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특보"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다. 發 行 處(日) : 上同(불명)

2. 分 析

가. 성 격

本 文 件은 주한미군 범죄와 재판권 이양 거부에 대한 비판, 미 패권주의에 의한 대북핵위협 비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나. 문제 내용

1) 미국의 대북핵위협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함.

"미국의 북한 핵위협 ...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2면)

2)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위협에 대항한 반미 입장을 밝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미국의 오만함을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다. ... 핵공격으로 한반도 평화위협 미국을 반대한다!"(2면)

3. 總 評

이상에서는 1) 미국의 대북핵위협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면서
2)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위협에 대항한 반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본 문
건은 반미자주의 입장에서 진보적 통일운동의식을 시사하고 있는 <반정부> 수준의
유인물로 판단됨. 끝.

2002 年 12 月 2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7618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창당대회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준비위원장 최송춘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2년 11월 29일)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내용은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준비위원장 최송춘 등에 의해서 작성 배포된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의 결성과 관련한 창당대회 전체의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창당대회>라는 제목하의 문건이다.

기본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성격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를 共產主義 기본이론에 해당하는 '계급모순'의 관점에서 부정하는 측면에서 출발한다. 더불어서 勞動者가 중심이 되어 투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02년의 후반기에 창당과 더불어서 組織되는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이 투쟁의 중심이 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 자체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한국사회와 김대중 정권 자체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급모순' 관점의 진보와 그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민주노동당의 목포지구당의 창당과 관련 단순히 김대중정권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주장이 아니다. 新自由主義에 根幹하는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 자체에 비판과 부정의 내용이다.

전체는 共產主義 관점의 사회 변혁을 전제하는 矛盾論에 의한 階級 변혁투쟁의 전체의 원론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자본의 신자유주의 경제 공세에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 구조조정
의 바람에 물리면서 생존권의 위협받고 있습니다.”(p.4의 중하단) 라는 전제하에서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과 함께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p.5의
하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진보와 그에 따른 社會變革을 꾀하는 민주
노동당의 목포지구당 창당과 관련한 내용이다. 단순히 현재의 김대중정권에 대한 비
판의 주장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에 근간하는 체제 자체에 비판과 부정의 내용이다.

2)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에는 지난 한 세기동안 이어져온 한국민중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평화통일, 평등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p.6의 중 상
단)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서 현재의 정권을 포함하는 保守政治의 타파를 주장
하고 있다. (p.7)

이는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의 ‘창당선언문’의 내용의 일부이다. 단순한 민족적 차
원의 민족해방이나, 민주사회의 구현이 아니다. 공산주의 모순론에 의한 階級 變혁투
쟁의 실천 전제의 내용이다.

3)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의 조직 결성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과 진보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과업을 목포에서 실천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p.10의 상단)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체제부정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노동당 목포지
구당’ 결성의 목표의 설정에 대한 언급이다.

4)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에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넘기고 이땅 노동자 대부
분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들에게 우리
민중들의 대반격의 깃발을 올려야한다”(p.30의 중 상단)라고 ‘특별결의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본 문건의 일관된 맥락의 주장에 해당하며, 계투 변혁투쟁과 투쟁의 성공에 대한 의
지의 표명이다.

3. 總 評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준비위원장 최송춘 등에 의한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창당대회>라는 제목하의 문건에 대해서 분석했다.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에서 언급한바, 현재의 한국사회와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를 부정하는 관점에서 勞動者가 중심이 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02년의 후반기에 조직되는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이 중심이 되자고 주장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한국사회와 김대중 정권 체제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진보와 그에따른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민주노동당의 목포지구당의 창당과 관련한 문건이다. 단순하게 김대중정권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주장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에 근간하는 현재의 우리 정권의 체제 자체에 비판과 부정의 내용이다.

더불어서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의 '창당선언문'의 내용에서는 민족적 차원의 民族解放이나, 민주사회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공산주의 관점의 사회 변혁을 전제하는 모순론에 의한 階級變革鬭爭의 전제의 원론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전제의, 주사파와 ML과 관점의 투쟁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용공>의 문건이다.

2002 年 12 月 27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7667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민주노동당 고려대학교 학생위원회 규칙 제정'

나. 作 成 者: 민노당 고려대 학생위원회

다. 發 行 處(日): 상동 (2002. 10. 9.)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고려대학교 학생위원회의 규칙으로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민중을 억압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대안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고려대 학생위원회는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1쪽)

2) 국가보안법을 민중을 억압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보법 폐지 주장은 바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1쪽)

3. 總 評

본 문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대안사회로서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을 민중을 억압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보법 폐지 주장은 바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본 문건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수용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을 선전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12 月 30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3-0234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결사대 당원 결의서입니다

나. 작 성 자 : 김 미 립

다. 발행처(일) : 고려대 총학생회 (2002. 11. 27)

2. 分 析

이 문건은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산하 학생위원회에 보낸 《결사대 당원 결의서》로 미군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미군들이 무죄판결을 받는데 분노하며 판결무효를 주장하는 반미투쟁의지를 결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북한의 반미투쟁노선을 직접 고무찬양, 선전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주장은 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3. 總 評

이 문건은 일부 반미적 시각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 내용이 북한노선을 고무찬양하는 단계로 발전되지 못하고 현실비판과 판결 무효화투쟁 수준단계에 머물러 있는바, 좌익용공의 이적성으로 규정하기 미흡하다고 분류된다.

2003 年 2 月 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鑑 定 書

030235

1. 對 象

가. 文 件 名 : 2003년 학생회 후보 반미반전 공동선언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고려대 학생위원회(2002.11.16)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이 문건은 인터넷 상의 민주노동당 고려대 학생위원회(<http://kdip.korea.ac.kr>) 게시판에 실린 것으로서, "2003년 학생회 반미반전 공동선언" 제하의 문건임.

나) 내용 분석:

(1) 이 문건에서는 먼저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재판권 이양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 반미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이 문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대적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강조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있음.

(2) 이 문건에서는 더불어 현 남한정부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한국정부의 전쟁 지원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음.

(3) 전체적으로, 본 문건에서는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과 대 이라크 전쟁,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등을 들어 반미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미적 주장이 어떠한 이념적 지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

3. 總 評

전체적으로, 본 문건에서는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과 대 이라크 전쟁,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등을 들어 반미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미적 주장이 어떠한 이념적 지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 단지 이 문건에서는 현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됨.

2003年 1 月 24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1190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성북구(갑) 지구당 규약

나. 作 成 者 : 미상

다. 發 行 處(日) : 미상

2. 分 析

가. 개요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성북구(갑) 지구당 규약 내용으로써 2002년 1월 27일 2차 정기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지구당 규약(총칙, 목적, 사업, 당원 자격, 당원권리와 의무, 기관의 지위와 구성 등) 내용 임

나. 주요 내용

- 규약 제2조에서 지구당의 목적을 “민족자주·민주주의·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건설을 위해 투쟁한다”라고 밝히고 있음.(1쪽)
- 규약 제3조에서 사업 내용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 문화,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등을 설정하고 있음.(1쪽)
- 당원의 자격, 당원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의 기능 등 조직의 일반적 규약을 담고 있음.(2-6쪽)

3. 總 評

본 문건의 내용 중 지구당의 목적과 사업을 밝히고 있는 “평등세상건설 투쟁”,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은 문제성이 엿보이고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의미를 표출하고 있지 않으며, 이념적 측면의 주장은 없음.

따라서, 본 문건은 이념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표현물로 판단 됨. 끝.

2002 年 4 月 1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2143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2002년 정기 당대회」
 나. 作 成 者 : 불 명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2002. 3. 16)

2. 分 析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의 2002년 정기 당대회용 자료집으로 추정되는 것임. 전체적인 내용은 2001년 사업의 결산 및 감사보고와 당헌 개정안 및 2002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임. 전반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일투쟁과 관련해서 반미투쟁이 강조되고 있음.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전체적으로 불 때 2001년 사업목표와 2002년 사업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의 부상을 피력하는 대목은 있으나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할만한 부분은 없음. 그러나 2001년 자주통일위원회의 사업내용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김대중정권 4년을 지나면서 반미 자주없이 통일도 민주도 개혁조차도 민중생존권도 보장받을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라고 주장하고(60면), “반미투쟁을 기본기조로 김대중정부 규탄 견인투쟁을 동시에 수행해나감으로써 통일운동노선의 과학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함(60면). 이러한 주장은 반미반정부투쟁을 핵심 통일투쟁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분히 NL주사파 투쟁단체들의 입장과 노선을 같이하고 있음을 감지케 함.

(2) 또한 2002년도 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한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의 전쟁위협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84면), 향후 투쟁사업과 관련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반대, 무기수입반대 내정간섭반대 등 반외세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비롯하여 주한미군기지 반환투쟁을 전국적 전당적으로 전개한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바(91-2면), 이러한 주장 역시 반미투쟁을 핵심적 투쟁전술로 하는 NL주사파의 투쟁노선과 동일한 입장에 서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3) 또한 상기 투쟁과제로서 "국가보안법 철폐, 테러방지법 반대 등 민주 민권 강화 및 제도개선투쟁"을 들고(92면), 이를 "반민주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는 항목에 두고 있는 바(92면), 이러한 주장도 통상 NL주사파 정향의 좌익적 투쟁단체가 선동하는 전형적인 주장 내용임.

<이하 여백>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이 2002년 정기 당대회를 치루면서 그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임.

전체적인 내용은 2001년 사업의 결산 및 감사보고와 당헌 개정안 및 2002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비록 본 문건에서 구체적인 좌익적 투쟁목표나 극단적인 투쟁선동적 주장은 없으나, 반미투쟁이나 통일투쟁과 관련한 주장은 통상 북한이 대남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기본노선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본 문건은 용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5 月 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1783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서구지구당 후보등록결과
 나. 作 成 者 : 서구선관위
 다. 發 行 處(H) : 상동. 2002.3.12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서구 선관위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중앙위원 후보들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유인물임.
2. 그러나 출마의 변 중에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자각을 거듭해온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3. 아울러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이에 기반한 민중권력 쟁취투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해방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쪽),
4. 또한 “노동자가 권력을 잡고, 권력을 노동하는 자의 경험으로 배분할 수 있는 사회, 진보적 여성이 권력을 잡아 여성들의 삶의 체험으로 권력을 배분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가 소외시킨 많은 이들이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어 나서는 사회가 진정한 역사 진보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2쪽)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5. 이러한 주장들은 곧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건설을 주장하는 내용들이라 사료됨.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중앙위원 후보들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으나,
2.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노동자가 권력을 잡고, 권력을 노동하는 자의 경험으로 배분할 수 있는 사회, 즉 민중권력 쟁취투쟁을 주장하고 있으며,
3. 나아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민중의 해방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4. 이러한 것들은 곧 프롤레타리아 정치권력을 쟁취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5. 용공성향의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4 月 1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1712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특보

나. 作 成 者 : 권영길(발행인)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에서 발행한 4쪽 분량의 소식지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이

- 부시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 한반도의 상호군축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주 5일 근무제' 전면시행 투쟁 등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 (1)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한의 상호군축 등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 선전선동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예문 >

-북한엔 전쟁위험, 남한엔 F-15 강매 '악의 축' 부시는 이 땅에 오지마라...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북한 상호군축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남북한의 상호군축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자주적 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합니다. (2쪽)

(2) '주 5일 근무제' 전면실시와 부정부패 척결, 민중복지 실현 투쟁 등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관철할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제'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실시하라!. (2쪽)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는 안됩니다...민주노동당은...민중복지를 실현하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현실이 되는 꿈, 여러분의 민주노동당입니다. (3쪽)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 힘있는 자들의 추악한 복마전 비리몸통 처벌하고 부패 재산 몰수하라...부정부패 척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대통령 자제를 포함한 친인척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제를 도입하라. (4쪽)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군축 등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 민중복지 실현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의 상투적인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상호 군축, 평화협정 체결 등 대남 선전선동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용공성향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건으로 분류된다. < 끝 >.

2002 年 3 月 1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1564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중진군 제2호
-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
-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2002. 2. 20)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 1)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 명의의 유인물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스, 철도, 발전 3사가 파업투쟁에 돌입했다며,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총 2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스, 철도, 발전 3사가 파업투쟁에 돌입했음을 선전하고 있음(1쪽).
- 2) 경찰과 공수부대 투입 계획으로 작업장에서의 파업은 무자비한 폭력만을 낳아 서울대로 노동자들이 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1쪽).
- 3) 불법 파업을 만드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정부와 사측이라 주장하며,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1-2쪽).
- 4) 민영화 정책이 이미 실패한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전하고 있음(2쪽).

3. 總 評

본 문건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스, 철도, 발전 3사가 파업투쟁에 돌입했다며, 이러한 불법 파업을 만드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정부와 사측이라 주장하며,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선전하고 있는 반정부적 성향의 주장인 내용임.

2002 年 3 月 15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1563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중진군」 제1호

나. 作 成 者 : 불 명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2002년 2월 20일)

2. 分 析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발행처가 발행한 2면 분량의 유인물임. 본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에 대해 공공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임.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공공투쟁본부의 총파업투쟁 선언에 대해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공투본은 24일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25일 연대총파업을 통해서 국가간산업 민영화가 야기할 재앙을 막고 국민이익과 생존을 지키려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전선동하고 있음(1면).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반정부적 성향을 지닌다고 판단됨.

(2) 또한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노사화합을 선언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제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입장으로 파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앞장서서 실천하기위해 싸운다는 시각으로 파업을 바라보고 연대의 마음을 보내야 할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도 다분히 반정부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3) 또한 2면에서 "2002년 양대선거"라는 부분에서 냉소적인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이는 보수정치만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기형적인 정치구도속에서 선거때의 투표 행위로서는 어떠한 대안도 만들 수 없음에 기인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력을 민주노동당으로 결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주장 역시 반정부적 정향을 지닌다고 판단됨.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발
행한 유인물임. 본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에 대해 공공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 반정부적 정향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3 月 1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1562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기관지창간준비호)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서울대학생위원회(전)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2. 2.6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2. 현재의 정세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1-7쪽),
3. 민주노동조합과 진보정치운동 및 민중연대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여 투쟁의 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 싸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8쪽).
4. 나아가 2002년 민주노동당을 혁신/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음(9-10쪽).
5. 공공부분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정권인 김대중정권의 심장부에 비수를 찌는 투쟁이 될 수 있다"라며 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음(11,26,28쪽).
6. <강령읽기-경제편>에서 먼저 "경제강령의 큰 슬로건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의 수립'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어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하고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22-24쪽)"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7.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적소유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현정부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불만과 분노를 사고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2. 나아가 민주노동조합과 진보정치운동 및 민중연대가 이러한 정세에 잘 대응하여 투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 민주노동당을 혁신/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역설하고 있으나,
4.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적소유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5.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용공성향의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3 月 15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1561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2001년 민주노동당 2차 서울대학생당원 총회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1. 12.19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2. 서두에 민주노동당 운동을 위해 서울대 당원들이 학생위원회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인사말을 소개하고 있으며(1-7쪽),
3. 기존의 진보진영 운동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면서(12쪽) 진보정당 건설을 통해서만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12쪽).
4. 나아가 학생당원들은 “총체적인 사회적 전망 속에서 사회를 바꾸어내기 위한 학생 운동의 구체적인 임무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역설하고 있음(14-15쪽).
5. 활동 방향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현실 국가사회주의와 유럽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서 진보적 대안을 발전시키고, 생태와 여성주의, 인권 등의 진보적 과제와 접점을 모색하여 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の内容을 깊이 있고 풍부화시켜 내는데 원조한다”라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음(23쪽).

6. 나아가 “ 사회변혁에 복무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수단은 다름 아닌 투쟁이다. 현실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당은 ‘진보’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며 당원으로서 정치투쟁을 할 것을 선동하고 있음(25쪽)
7. 이어 현정권의 노동유연화, 해외매각, 민영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28-29쪽),
8.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저지를 목표로 하는 수세적인 투쟁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공공성 강화라는 당 강령과 결합되어 자본주의의요체인 사적소유와 시장지상주의를 공격하는 수준 높은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29쪽),
9. 여기 언급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공공화 및 사적소유와 시장지상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로의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이라 사료됨.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학생당원으로 해야 할 임무와 방향 등을 고찰하면서,
2. 기존 진보진영 운동방식의 한계와 현실 국가사회주의와 유럽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진보정당건설의 질적인 도약을 제안하고 있으나,
3. 현정부의 노동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사적소유 및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4.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용공성향의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3 月 15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1190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다함께 2002년 2월(9호)

나. 作 成 者 : 노승희 외

다. 發 行 處(日) : . (2002. 1)

2. 分 析

가. 개요

본 문건은 국내외 시사 사안과 관련한 글들로 구성된 월간지로서, 반미·반정부 투쟁 의식 고취 및 투쟁 유발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나. 주요 문제내용

- 부시대통령을 '전쟁광', '민중의 적' 등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 예문: "부시는 전쟁광이다 ... 오만한 제국주의자다 ... 세계 민중의 적이다".(1쪽)
- 현 정부를 노동자 탄압정권으로 인식케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 예문: "김영삼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김대중 ...".(7쪽)
-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비난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 예문: "미국의 전쟁이 부른 또 하나의 야만".(16쪽)
- 베트남의 반전운동을 고찰하며 반전운동을 통한 반미투쟁 전개를 제기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 예문: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서 배운다 ... 베트남 반전 운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반전운동을 통해 미국 제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19-20쪽)

○ 현정부를 '최악의 부패정권' 등으로 비난하며 현정부 반대투쟁 전개를 제기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예문 : "김대중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의 부패정권'으로 기억될 만 하다".(26-27쪽)

○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저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유일한 길이라고 시사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예문 : "철도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유화의 폐해에 맞선 영국 철도 파업 ...".(33-34쪽)

3. 總 評

본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부시' 대통령을 '전쟁광' 등으로 비난하고 반미반전 투쟁 전개를 제기하는 내용, 현정부를 "최악의 부패정권" 등으로 비난하고 현 정부 반대 투쟁과 노동자의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전개를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이념적 측면에서 문제성의 주장은 없음. 따라서, 본 문건은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로 판단됨. 끝.

2002 年 3 月 4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0509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다함께

나. 作 成 者 : 이정구 등 다수

다. 發 行 處 (日) : 불명(내용상, '다함께 편집부' 2002. 1.)

2. 分 析

가. 기본성격

月刊 잡지의 형태로 發刊되는 '다함께'라는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이 분석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發行處와 출판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함께' 라는 잡지 출판부에서 월간으로 발간하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다함께'라는 제목하의 문건은 <야망과 희망>이라는 편집자의 머리말을 필두로 하여 총 20여편의 각각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제목하의 경우는 특별한 이념적 문제점이 없는 단순 示唆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비판의 내용이 그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내용에 한해서는 細部分析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부분석에서 다른 내용의 경우는 한국사회와 현재의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階級矛盾의 관점에서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다른 내용도 유사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민주화 된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부' 體制에 대해서 사실상의 관점에서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프칸 전쟁의 예를 들어서 김대통령이 미제의 하수인의 역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의 制定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주장들에 대한 복합적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국내의 좌파들의 경우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抵抗을 투쟁으로 전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한국과 현정권에 대한 체제부저의 내용이다.

p. 3의 <야망과 희망>의 내용 전체.

p. 10의 <민주주의 대한공격>의 내용 전체.

pp. 20 22의 <김대중, 선거, 진보진영의 도전>의 내용 전체.

2) 미국의 경우 그리고 서방에서는 아프칸 텔레반 정권의 붕괴로 인하여 여성이 解放되었다고 하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붕괴해야 여성의 해방이 온다는 관점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본주의는 스포츠 자체를 생산의 논리로 변질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공산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pp. 8-9의 <아프칸니스탄 여성은 해방되었는가?>의 내용 전체.

pp. 18-19의 <월드컵, 스포츠, 자본주의 >의 내용 전체.

3) 전북대 교수 강준만의 노무현의 지지에 대한 시시비비 평가의 내용이다. 일단 반 김대중의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의 진보진영의 경우는 당선과는 관계없이 진보진영의 支持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계급모순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정당화의 내용이다.

pp. 23-25의 <강준만 교수의 '비판적 지지'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 전체.

4) 資本과 세계화에 맞서는 국제연대의 결성과 투쟁의 活性化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한국이 외국 노동자의 이주와 취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비판의 관점이다.

실체는 階級矛盾에 의한 변혁투쟁의 원론적 지지다.

pp. 28-29의 <이주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라>의 내용 전체.

5) 크리스마스 축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혁명가로서 예수는 미흡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민중해방의 기수정도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자체를 공산주의 혁명투쟁의 연상선에서 보는 원론적 내용이다.

pp. 36-37의 <크리스마스 해방>의 내용 전체.

3. 總 評

月刊 雜紙의 형태로 발간되는 '다함께'라는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을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함께'라는 제목하의 문건은 위의 기본성격에 언급한바, <야망과 희망>이라는 편집자의 머리말을 필두로 하여 총 20여편의 각각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는 단순한 時事的 차원의 내용도 있다. 그러나 세부분석에서 언급한 내용의 경우는 한국사회와 현재의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階級矛盾의 관점에서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측면의 내용이다. 총괄적으로 계급모순에 의한 변혁투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위의 세부분석에서 다룬 내용의 경우는 PDR파의 <용공>의 문건이다.

2002 年 1 月 2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 - 0078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시민 사회운동의 현실인식과 대응방향

나. 作 成 者 : 정대연(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외

다. 發 行 處(日) : 미상(2001.09.26.)

2. 分 析

가. 성격

이 문건은 2001년 9월 26일 14시 홍사단 강단에서 개최된 “시민·사회운동의 현실 인식과 대응방향”의 토론회의 발제문으로서 총 32쪽의 자료임.

나. 내용 분석

● 이 문건의 “민족민주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의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현안에 대한 소개”(정대연)<pp.14-22.>에서는 구조조정저지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투쟁, 반미투쟁, 반김00정권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노농연대투쟁, 노동법개악저지투쟁, 진보진영정치세력화투쟁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음.

0. “... 상반기 정세전망에서 예견한 바와 세계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독점자본의 더욱 거센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김00정권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하기에 하반기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김00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들이 되는 민주노총 등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고강도의 탄압정책과 고립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부시정권은 MD구축과 대북적대명책 등 노골적인 패권정책이 안팎의 저항과 비판에 부딪히자 북미대화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연동하여 반통일수구세력의 사대매국적인 반통일책동도 날로 극심해져 최근에는 지극히 위협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00정부의 동요성과 사대매국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00정부의 사대매국적 행위는 이른바 '전력증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전쟁무기도입과 최근 전개된 울지포커스렌즈 훈련과 같은 연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지극히 위;협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김00정부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국가보안법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민족분열책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사이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지면서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와함께 남측내에서 반미투쟁이 날로 고양되고 있는 것도 조국통일의 유리한 정세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pp.14-17>

0. "...전국민중연대의 하반기 투쟁은 정세분석에 기초하여 투쟁방향을 정하고,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에서 민중연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잡는 것과 함께 특히 상반기 투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점을 극복함으로써 민중진영의 상설적공동투쟁체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초를 잡아야 한다... 1.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전선을 형성한다... 2. 광범위한 반김대중·반미연대전선을 구축한다... 3. 통일정세에 대응한다... 4. 정치투쟁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권력교체기에 주동적으로 땀 흘릴 태세를 갖춘다... 5.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조건을 마련한다... III. 핵심투쟁과제... 1) 한국철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민영화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저지투쟁 2)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무역협정체결 저지투쟁 3) 노동법 개악저지, 민영화 관련법안 저지 및 개혁입법쟁취투쟁... 4) 10월 부시방한 반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 5) 국가보안법철폐투쟁..." <pp.18-19.>

<이하여백>

3. 總 評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의 투쟁방향을 구조조정저지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투쟁, 반미투쟁, 반김00정권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노농연대투쟁, 노동법개악저지투쟁, 진보진영정치세력화투쟁, 조국통일투쟁 등에 집중시키는 핵심투쟁과제를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인 바,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됨. <끝>

2002 年 01月 15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0387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자주통일 위원회 28차 회의보고"
-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위원회
-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1. 11. 6.)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보고용 자료로서, 자주통일 위원회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주요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민주노동당은 반미투쟁으로 투쟁하는 정당,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다양한 자주통일사업에서의 연대연합을 실현함으로써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內 容 分 析

- 1) 민주노동당은 반미투쟁으로 투쟁하는 정당,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6월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가 ... 용산미군기지앞 일상적인 반미투쟁으로 투쟁하는 정당,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제 세력과 국민대중들에게 보여주었으며, ... 마련됐습니다."(3쪽 13-17행)

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다양한 자주통일사업에서의 연대연합을 실현함으로써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다양한 자주통일사업에서의 실천적인 연대연합, 공동행동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속에서 당에 대한 인식과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키는 커다란 성과가 마련되었습니다."(3쪽 16-17행)

3. 總 評

본 문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주노동당은 반미투쟁으로 투쟁하는 정당,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다양한 자주통일사업에서의 연대연합을 실현함으로써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본 문건에서 표출되는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을 볼 때 좌파 시각이 내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 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뒷받침 논거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본 문건은 '문제없음' 범주로 분류되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1 月 25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0386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자주 통일 위원회 29차 회의보고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위원회, (2001. 11. 20)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위원회"에서 발행한 10쪽 분량의 제29차 회의 보고로서, 전반적인 내용이 자주통일 위원회의 사업 보고와 당면 사업계획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 (1) '전국 노동자 대회'와 '단병호 위원장 석방 결의 대회' 등에 대한 사업을 보고하고, '이북 바로 알기'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사업' 등을 당면 사업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 예문 >

-중앙사업보고...승실대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 대회' 통일한마당에 민주노총, 자통협, 통일연대 등과 함께 참여해 미군기지 사진전...서명 400여명 받음...11월 17일(토)-'파주 전동록씨 피해 보상과 미군기지 규탄집회' 진행...당면 통일위원회 사업계획...이북 바로 알기...용산 미군기지 앞 투쟁 계획입니다...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 사업...첫 사업은 민주노동당에서 한 달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는 투쟁을 계승하여 운동본부 사업으로 받고 11월 24일 집회를 준비위 발족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2-4쪽)

(2) 대한항공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음.

< 예문 >

-KAL기 사건 대응의 건...인도양의 경우 기체잔해, 시체, 유품이 무수히 나오는데 KAL기의 안다만의 경우 기체조각 하나, 시체 한 구, 유품 한 점 나오지 않았습니다...정부가 발표한 KAL기 사건은 <북한이 폭파한 것>이다. 그러나 14년간의 나의 추적 결과는 <북한이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정부주장의 허위성...북한 범행 주장에 대한 반박...김현희=북한의 화동...증명 안됨...김정일 친필지령에 의한 KAL 폭파...당일 안기부 수사관은 친필지령은 없다고 기자회견...김현희와 같은 한조를 이룬 바레인에서 음독 자살한 김승일을 정부에서 영어 등 4개국어에 능통한 국제테러리스트로 발표함, 실제로는 70세 고령인데다 일본에서 영어를 전혀 못했고, 위의 거의 전부가 절제된 환자였음이 밝혀졌는바 도저히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없음...김승일 소지 위조 일본여권은...똥어썩은 것임...폭파주장에 대한 반박...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로서 조작의 가능성이 큼...언론의 북한몰이...특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서는 사건발생당시는 물론 그 이후 14년간 이 사건을 들어 김정일 위원장을 매도, 북한범행을 계속 물고늘어짐으로서 통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음. (5-8쪽)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대한항공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북한의 범행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위원회"의 기간 사업을 보고하고 당면 사업계획으로 북한 바로 알기 및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을 선전선동 하고 있는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 끝 >

NL	PD	기타

2002 年 1 月 22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0062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노동자의 힘(준)>대표 박성인 동지에게 드리는 글
 나. 作 成 者 : 황광우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2001. 4. 3)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에서 발행한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 3호에 게재된 7쪽 분량의 「노동자의 힘(준) 대표 박성인 동지에게 드리는 글」 논제의 글로서, 전반적인 내용이 평등연대 6호의 「2001년 정세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에서 밝힌 박성인의 대답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 (1) 87년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의 건설로 1차적으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성인의 견해가 과거 지향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아직까지 당의 주도적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음.

< 예문 >

-87년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간부이지만, 민주노동당을 주도하는 흐름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민주노동당은 크게 보면 80년대의 혁명적 노동운동속에서 단련된 당원들과 90년대의 노동조합 운동 속에서 성장한

당원들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들 하나의 노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적 흐름이 아직은 없음을 밝힙니다. 주도적 흐름이 없는 민주노동당은 주도적 흐름을 형성시켜 나가야 하는 자기 과제를 갖는 당입니다...동지의 견해는 사태를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민주노동당의 주도적 흐름이 혁명적 민족주의가 될지, 혁명적 사회주의가 될지, 사회민주주의가 될지, 전투적 조합주의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50쪽)

- (2) 박성인이 정치적 무책임으로 노동계급 조직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힘(준)이 자신의 강령을 공개해 나갈 것과 사회주의자들이 단결할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노동자의 힘(준)이 노동조합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씨름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의 정치조직이라면, 먼저 자신의 강령을 공개해야 합니다...강령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 위에 작성되는 것이지...당면한 투쟁의 뒤를 따라 다니며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50-5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노동계급 조직들의 분열을 추동 하는 박동지의 주장을 듣노라면...노동계급의 해방을 열망하는 동지들끼리 사소한 차이를 두고서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임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55쪽)

- (3) 노동계급의 해방을 촉구하면서, 맑시즘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단결할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나는 아직도 노동자계급의 사상은 맑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 선언」 학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몰락하

고 지구상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된 오늘의 정세에서, 맑시즘을 힘있게 단결하여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 이상의 어떤 대안이 있을지요? (54-55쪽)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의 건설로 1차적으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한 박성인의 주장이 과거 지향적인 오류를 범하고 노동계급 조직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아직까지 당의 주도적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노동자의 힘(준)」이 자신의 강령을 공개해 나갈 것과 노동계급의 해방을 촉구하는 한편 맑시즘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단결해 나갈 것을 선전선동 하고 있는 용공성향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건으로 분류된다. < 끝 >

2002 年 1 月 10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